

맨시티, 만수르의 꿈 '트레블' 이룰까

〈EPL·FA·UCL 제패〉

10·18일 '괴물 골잡이' 홀란 앞세워 레알과 결승행 격돌
지난 시즌 5-6 역전패... "두 번 실패는 없다" 설욕 나서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를 정복할 수 있을까.

맨시티는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을 앞세워 무서운 기세로 EPL과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UCL까지 타이틀을 휩쓰는 '트레블'을 노리고 있다.

맨시티가 UCL 정상의 길목에서 만나는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다. 10일 오전 4시(한국시간) 1차전에 이어 18일 2차전을 치른다. 1차전은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차전은 맨체스터에서 열린다.

맨시티는 지난해에 이어 2시즌 연속 레알 마드리드와 결승행을 다룬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4강전에서 1, 2차전 합계 전적 5-6으로 역전패해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올시즌에는 통산 14회 우승에 빛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높이고 결승에 오를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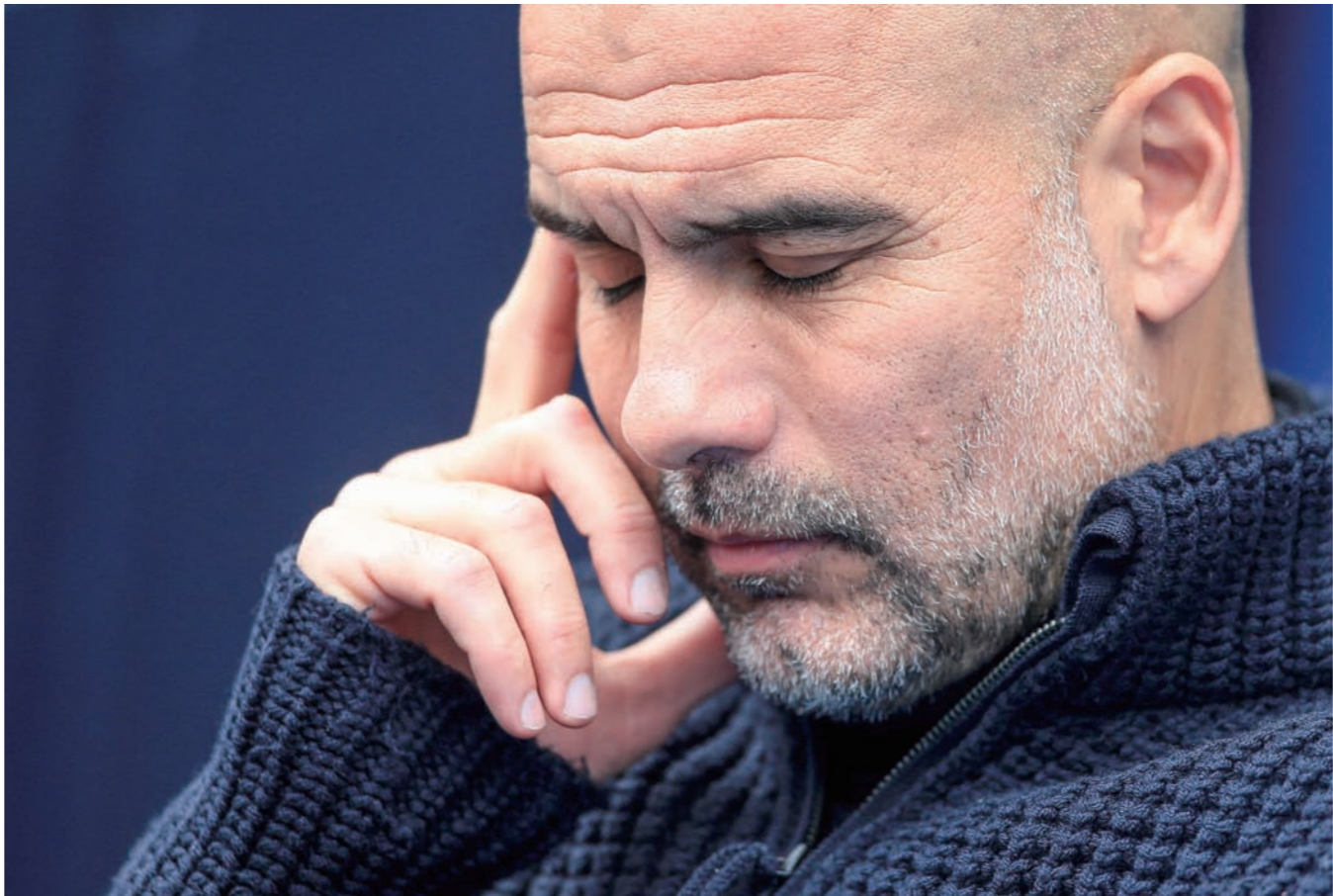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이자 석유 재벌인 셰이크 만수르(53)가 2008년 인수한 맨시티는 2010년대 들어 오일머니를 앞세

워 EPL를 대표하는 강호가 됐다. 세계적 인 거부인 만수르의 자산은 무려 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맨시티는 EPL에서 만년 중하위권을 맴돌던 약팀에 불과했다. 만수르는 2조 원 넘게 쏟아 부으며 맨시티를 초호화 선수들로 꾸렸다. 독일 축구전문지 트랜스퍼마크트는 맨시티 선수단의 몸값을 1조5300억 원으로 추정했다. EPL 20개 구단 중 가장 높다. 만수르의 과감한 투자는 성적으로 직결됐다.

맨시티는 EPL 우승 5차례, FA컵 우승 2회, 리그컵 우승 6회를 기록하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를 주름잡았다. 하지만 맨시티는 유럽 클럽축구 국가대항전인 UCL 무대에 서면 작아졌다. 막대한 돈을 축구에 쏟아부었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게 UCL 챔피언이다. 맨시티가 2011~12시즌 44년 만의 EPL 우승을 달성했음에도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두 시즌 연속 UCL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그를 결정한 이유다.

맨시티는 UCL 챔피언과 함께 최강 팀의 상징인 '트레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유럽에선 최강 팀의 상징으로 '트레블'을 꼽는다. 트레블이란 리그와 컵대회, UCL 우승 등 3관왕을 의미한다. 유럽 축구에서 9개 팀만이 진정한 의미의 트레블을 이뤄냈다. 지금까지 EPL 소속 팀이 트레블을 이룬



전략을 구상하느라 깊은 생각에 잠긴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AFP=연합뉴스

것은 199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일하다. 맨시티는 UCL 무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번번이 미끄러지며 트레블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올시즌에는 사정이 다르다.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1m95의 홀란이 가세하면서 골 결정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홀란은 지난 4월 EPL 34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서 리그 35호 골을 기록하며 단일 시즌 최다 골을 갈아치웠다.

홀란이 가세하면서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로 통하는 케빈 데 브라워너도 예전의 경기력을 되찾은 게 고무적이다. 홀란은 올 시즌 UCL에서도 12골을 터뜨려 득점왕을 예약해 놓은 상태다.

더구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UCL 개린통산 100승에 1승만을 남겨 놓고 있다.

UCL 역사상 100승 고지를 밟은 감독은 은퇴한 알렉스 퍼거슨 경(102승-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카를로 안첼로티(108승-레알 마드리드) 단 두 명뿐이다.

맨시티는 4경기가 남은 EPL에서 아스널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다음달 3일 지역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A컵 결승전을 남겨 놓고 있다.

임한상 기자 hsrin@skyedaily.com

〈나폴리〉 〈마요르카〉 김민재 vs 이강인 6월 한국 맞대결

한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인 김민재가 뛰는 나폴리(이탈리아)와 '원더 보이' 이강인이 속한 마요르카(스페인)가 6월 국내에서 두 차례 친선 경기를 벌인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스포츠 전문 컨소시엄으로부터 나폴리와 마요르카 친선 경기의 국내 개최 신청 서류를 받아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 일자와 장소는 6월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6월10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이다.

2022-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무려 33년 만에 우승한 나폴리와 이강인이 이번 시즌 맹활약 중인 마요르카가 국내에서 맞대결할 경우 웬만한 국가대표팀 경기 못지않아 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수비수 김민재와 공격수 이강인이 각각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벌이게 될 '창과 방패'의 대결은 팬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경기가 열릴 서울과 경기도 시설관리공단과 지역 축구협회는 해당 경기 개최에 동의해 승인 절차를 마쳤다.

또 나폴리와 마요르카가 외국에서 친선 경기를 벌일 경우 필요한 유럽축구연맹(UEFA)과 이탈리아, 스페인 축구협회 및 프로연맹 승인도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차전이 열릴 6월10일은 국내 프로축구 K리그 경기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토트넘(잉글랜드)과 세비야(스페인)의 국내 친선 경기가 개최된 7월16일에도 K리그 경기가 함께 열린 선례가 있어 이번에도 일정을 정하는 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3월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 이강인(왼쪽)과 김민재가 협력수비를 통해 상대로부터 볼을 빼앗고 있다.

박민지, 역대 4명만 밝아본 단일 대회 3연패 도전

12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



지난 2년 동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대세'로 군림한 박민지가 지금까지 4명밖에 이루지 못한 단일 대회 3연패 기록에 도전장을 냈다.

프로 7년차로 통산 16승을 거둔 박민지는 12일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 원)에 출전한다. 박민지는 2021년에 이어 작년

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번에 타이틀 방어에 또 성공하면 대회 3연패를 이룬다.

KLPGA투어에서 단일 대회 3연패는 고(故) 구옥희, 박세리, 강수연, 그리고 김혜림 등 4명만이 밝아본 대기록이다.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박민지의 후원사인 NH투자증권이 주최한다. 한국 프로 골프에서는 후원사 주최 대회의 우승은 선수에게 아주 중요하다. 재작년 이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해



지난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연패를 달성한 박민지. KLPGA 제공=연합뉴스

2연패를 달성했을 때 박민지가 다른 대회 우승 때보다 기뻐했던 이유다.

이번 시즌 들어 4차례 대회에서 2차례 톱 10에 이름을 올리며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 박민지는 시즌 첫 우승을 뜻깊은 대회 3연패로 장식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박민지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26위, 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 3위, 제45회 KLPGA 챔피언십 28위에 올라 올해 열린 3개 대회에서는 인상적인 성적을 내지 못했다.

박민지는 이 대회에 앞서 코스 세팅이 어렵기로 유명한 일본여자프로골프

(J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파스컵에 출전해 샷 감각을 조절했다. 박민지는 공동 20위(13오버파 301타)에 그쳤다.

박민지의 대회 3연패를 저지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부활한 이다연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상급랭킹 1위 박지영과 국내 개막전 챔피언 이예원, 그리고 우승없이 대상 포인트 1위에 오른 이소영과 상급 3위 박현경도 빼놓을 수 없는 다크호스들이다. KLPGA투어 초반 판도를 뒤흔드는 신인 3연방 김민범, 황유민, 방신실의 패기도 볼거리다.

박병형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수 있음)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